

# 고대사 실상 알리는 자료의 寶庫

문화부 선정 '이달의 문화인물' 僧 一然과 그의 「三國遺事」

「三國遺事」는 고려 중기 몽고군의 말발굽 아래 신음하는 고려민중의 민족적 각성과 비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雜錄的 역사서이다. 불교철학과 풍부한 민족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기술된 「삼국유사」는 고종에서 충렬왕까지 청장년을 거친 일연이 충렬왕 7년을 전후해서 (1281-1283) 지은 것으로 승려로서의 본연의 임무 외에 민족적 염원을 지닌 그의 유작으로 보여지나, 그것이 시대의 추이에 따라 그 전거가 되는 사서들이 인멸되고 「삼국유사」만이 홀로 남아 중요성을 크게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일연이 살았던 시대는 최씨 무신정권의 전성기에서 몽고침입의 시기를 거쳐 강화천도, 몽고에의 굴복 등 어지러운 상황으로 일관되던 시대였다. 「삼국유사」는 이러한 전란 속에서 청장년 시대를 보내야 했던 선승에게 일종의 정신적 반항과도 같은 결과물인 것이다.

## 일연의 생애와 「삼국유사」의 대체적 구성

일연은 고려 희종 2년 (1206) 6월 경상도 장산군 (지금의 경산)에서 아버지 김언필과 어머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처음 이름은 見明이고 자는 晦然으로, 一然은 그의 법명이다. 고종 1년 (1214) 해양 (지금은 광주)의 무량사에서 불교에 대한 공부로 시작했으며, 14세에 설악산 진전사의 대웅장로 밑에서 승려가 되었다. 그는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며 수도하였는데 이 때의 생활은 후에 「삼국유사」 저술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렇게 수도생활을 하던 중 무주읍에서 홀연히 “내 오는三界가 幻夢과 같고 대지에 티끌만큼의 장애가 없다는 것을 알았노라”라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한다. 고종 14년 (1227)에는 승과인 선불장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 한후 여러 사찰에 머물며 불교 연구와 설법에 힘썼으며 원종9년 (1268)에 팔만대장경의 낙성회를 주관하여 명망이 당대에 떨쳤다. 충렬왕 9년(1283)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國尊으로 책봉되어 원경초조의 호를 받게되었다. 보각국사 일연이 열반에 든 것은 충렬왕 15년(1289), 그의 나이 향년 84세가 되던 해였다.

그가 남긴 저서로는 「語錄」 2권, 「偈頌雜著」 3권, 「曹洞五位」 2권, 「祖圖」 2권, 「大藏須知錄」 3권, 「諸乘法數」 7권, 「祖庭事苑」 30권, 「禪門拈頌事苑」 30권 등 모두 100여권이나 된다고 하지만 「삼국유사」와 「조동오위」(일본 동경대학 소장)만이 지금까지 전해져 후세인

「삼국유사」의 전체구조는 '잡록'적

성격의 고기록과 불교 神異談의

집성이지만, 이 고기록중에 일연

당시까지의 있었으나 그후 소멸된

기록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 「삼국유사」의 여러

편목중 '기이' 속에는 가장

한국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으로 하여금 당시의 높은 정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가 70세를 전후해 저술한 「삼국유사」는 삼국의 문헌에서 「삼국사기」의 개악과, 「해동고승전」에 틀린 것과 누락된 것을 보충하려는 뜻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삼국유사」는 권1 ('王曆' '紀異' 1) 권2 ('紀異' 2) 권3 ('興法' '塔像') 권4 ('義解') 권5 ('神呪' '感通' '避隱' '孝善') 등의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 '왕력'은 최치원의 '제왕연대력'에 의거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기이' 1·2는 고조선 이하 상대 여러나라의 흥폐와 신라 역조의 유사 및 백제·후백제·가락국 등에 관한 내용이 60편 실려 있는데 「구삼국사」에 실려있지 않는 유사를 추려, 유교적 합리주의로 지나쳐버린 기이한 사건을 적어놓은 것이다. '홍법'은 불법동류의 사적을 신라중심으로 서술하고 고승전의 체제를 갖추었으며, '탑상'은 사기·탑상에 얽힌 승전 및 사탑연기설화를 모은 것이다.

## 고대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문헌

「삼국유사」의 전체구조는 고기록의 잡록과 불교 영이담의 집성이지만, 이 고기록중에 일연 당시까지 있고 그후 소멸된 기록이 있기에 그 중요성은 더하다. 삼국유사의 여러 편목중 '기이' 속에는 고기록중 가장 한국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구삼국」의 동명왕 사적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고시형식으로 정착되었으며, 상고 기록의 전형적인 모습이 고려 문종때의 「가락국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가락국기」는 「구삼국기」의 체제를 암시해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삼국유사」가 비록 일연법사에 의해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영정.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신화·전설·가요·생활사의 보전으로서 「삼국사기」와 더불어 고대사연구의 보고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어느 면에서는 「삼국사기」보다 더 중요한 문헌이 되는 것이다.

한편 「삼국유사」는 불교적 견지에서 많은 승전, 사기, 탑기, 연기문, 사찰문서 등을 원용하고 있다. 승전으로는 전기 김대문의 것의 인용여부도 문제이지만 그밖에 여러 成道記도 원용하고 있다. 승전은 「해동고승전」 2권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고 육당은 지적한 바 있는데 이밖에 「삼국유사」는 중국의 승전과 많은 寺誌, 고문서, 불교문헌들을 원용하고 있어서 자료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심대하다고 볼 수 있겠다. 즉 많은 전란을 겪어 상고시대의 기록이 없어진 오늘날 몇구절 기록이라도 삼국유사에 남아있다는 것은 다행일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이러한 기록들이야말로 우리 한국문화의 오래된 일면으로서 신라를 위시한 삼국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삼국유사」가 지금에 이르러 더욱 중요성을 띠는 또하나의 이유는 이 책에 신화적, 전설적, 민속설화적인 모티프가 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전설·설화 등은 단군의 곰, 혁거세의 흰말, 탈해의 까치, 알지의 흰닭 등에서 토tem의 흔적을 보여주며, 그밖에 물신, 초자연성, 신성기호, 거석구조, 부족회의, 왕위계승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신화에 있어서도 고조선, 부여, 고구려, 신라, 가락국 등의 건국신화와 신라 중심의 호국 인물설화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밖에 많은 유형의 신화·민간설화·지명기원설화가 있고 특히 사원연기적 지명설

화가 이 「삼국유사」의 불교적 색채로 말미암아 수록되어 있다. 또한 「삼국유사」는 「균여전」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향가 14수가 수록되어있는 문헌으로서 금석적인 가치를 지닌다.

## 원문 교감과 철저한 역주 기대돼

비록 14수라는 적은 수의 향가이지만 고대문학사의 실증에 있어 이 유사의 가치는 절대적이라고 할수있는 것이다. 향찰로 표기된 향가는 우리나라 고대언어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료가 되고 있으며, 借字 원리의 글자로 표기된 음운·지명·인명의 표기 또한 귀중한 자료로서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 민족의 정신사적 측면에서 「삼국유사」가 지니고 있는 현재의 가치중 앞에서도 언급한 단군신화를 비롯한 건국신화의 수록으로 우리의 뿌리를 알수있다는 것 이외에도 삼국유사는 탑과 불상, 사원등에 관한 '탑상' 편의 기사는 불교미술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어서 역사고고학의 대상이 되는 유물 유적을 조사 연구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문헌이 되기도 한다.

민족문화유산의 원초적 보고라고 할수있는 「삼국유사」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망각의 대상으로 변해, 잃어버릴 위기에서 광문화 소장의 하 3책이 나오고, 순암 안정복의 수택본이 이마니시에게 돌아가 그것이 영인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으나 그후에 다시 송석하 장본으로 돌아간 권 제1의 영본이 나타나 이들을 교정하여 육당 최남선이 다시 활판으로 출판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가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삼국유사」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원문에 대한 철저한 교감과 정밀한 역주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성수 기자